

일상생활에서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ather's Role in Daily Life

정 영 숙 · 이 재 택* · 박 영 애** · 권 수 애*** · 김 영 남****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아버지연구회* · 한남대학교 가정교육과** ·
충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Chong, Young Sook · Lee, Jae Taek* · Park, Young Yae** ·
Kweon, Soo Ae*** · Kim, Young Nam****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 Assembly of Father Research*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annam Univ.** ·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buk
National Univ.***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Abstract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ive the basic informations about parent education for fathers. The second purpose was to develop the parenting skills by examining role frequencies of fathers. The third purpose was to reduce the parenting difficulties of father in daily life.

The contents of the study was

1. the expectaion and practice of father's role
2. frequencies and difficulties in performing role for daily life
3. socioeconomic factors to affect father's role
4. the correlation between frequencies and difficulties in performing role
5. the correlation among role areas and life satisfaction in father's role

The subjects were 520 fathers from 11 cities of Korea. The instruments used for their study were questionnaire composed of socioeconomic factors, the recognition of father's role, child rearing, day-to-day guidance, academic guidance, leisure and hobby, commuication and emotion, economic support etc.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F-test(LSD), Pearson's correlation by SPSS PC*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Fathers recognized that desirable fathers are attentive to their children and guide them in the right way.
2. Among father's role frequencies, the communication and emotion was highest and child rearing and academic guidance were the lowest. Among father's role difficulties, economic support was the highest, and dat-to day guidance was the lowest.
3. The socio-economic factors to affect fathering and role difficulties were mother's job, father's home town, age, income, academic career etc.
4. The correlation between father's role frequencies and difficulties was very high.
5. For father's role frequencies and difficulties, each factor was parenting correlated to life satisfaction.

I. 연구동기 및 목적

산업화 이후에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난 가운데, 급속도로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한국사회의 가정은 대가족의 전통성이 남아 있으면서도 많은 가정이 핵가족 형태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하여 자녀양육의 문제가 점차 한 가정, 한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 양성해야 된다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최근들어 사회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은 범죄, 마약, 알콜중독, 흡연, 성폭행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청소년의 부모폭행 행동 같은 가정 파괴적인 현상까지도 발생하며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되고 자녀출산을 통하여 아버지·어머니가 되는데, 그들이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따라서 부모역할의 부재와 이혼 등으로 가정은 위기상태로 진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사회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모를 돕고, 문제발생을 예측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 시민, 단체, 국가가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화로 핵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이 커졌고, 부모가 자녀문제를 나누어 맡아야 하는 등 부모역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의 변화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모임을 통하여 활동과 운동을 펼쳐온바, 이제는 전국적인 규모의 아버지 모임 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 생각되어진다.

아버지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는 1960년 말로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 초부터 활성화되었고, 한국에서는 1970년대 말에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연구도 촉진되었고, 아버지의 역할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이 증명되어 왔다(정

영숙, 이희자, 1979; 최경순, 1992, 황정해, 1992).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은 아버지의 생활지도와 상관이 높았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아버지가 놀이상대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생활지도면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최경순의 1인, 1995). 이 연구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양육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난 30여년 동안, 아버지들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국가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공헌하느라 가정에서의 역할은 어머니에게 일임하여 자녀양육 및 교육과 가사수행에 대하여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김으로서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결과, 아버지의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별로 차이가 나타났고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는 연구도 있었다(차은영 1987, 박문학 1988, 양미경 1996).

부모 역할에 대한 기술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개발되었는데, 그 중 T. Gordon의 부모 효율성 훈련(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은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적 가족환경에 적합한 부모 역할 방법도 개발되어 수정 보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아동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PET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의사소통기술 향상과 자녀양육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관의 변화에 공헌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연미희, 1995).

요즈음 부모들이 “부모노릇하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과연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역할수행과 어려움의 정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아버지 역할의 실제와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들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역할수행상 부딪히는 어

려움의 정도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아버지가 자녀양육 및 교육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1.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실제
2. 일상생활에서의 영역별 아버지 역할수행 및 곤란도
3. 아버지 역할수행 및 곤란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4. 아버지 역할수행도와 곤란도간의 상관
5. 아버지 역할수행과 곤란도에 있어서 역할영역과 생활 만족도간의 상관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서울, 부천, 고양, 청주, 대전, 광주, 왜관, 울산, 경주, 부산 등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10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720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72%), 이 가운데 무응답이 많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520부(분석율 52%)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1997년 3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본조사는 1997년 3월 27일부터 4월 12일에 걸쳐서 수행하였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 10문항,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를 평가하는 질문 5문항, 가정생활에서 양육면, 생활지도면, 학습지도면, 여가 및 취미생활면, 대화 및 정서생활면, 경제적 지원면의 6개 영역에서 아버지로서의 행동수행 빈도와 곤란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 54문항, 그리고 직업생활, 아

버지역할, 자녀에 대한 기대에서 만족도를 평가한 질문 5문항으로 모두 7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정생활 영역별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도는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하지못하였다를 1점~늘 그렇게 한다를 4점), 가정생활영역별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 곤란도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1점, 매우 어렵다는 5점,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대단히 불만족을 1점~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한 5점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가정생활 영역별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도 및 곤란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가정생활 영역별 역할수행도 및 곤란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도 및 곤란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 방법으로 LSD ($\alpha=0.05$)를 실시하였다. 또한 역할수행 빈도와 곤란도와의 상관관계, 역할수행 빈도와 곤란도에 있어서 영역간 상관관계, 그리고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현거주지, 주성장지, 직업, 배우자의 직업유무, 월 평균소득, 자녀수, 자녀의 성별 그리고 가족형태를 알아보았다.

연령에 있어 30-39세가 가장 많아 절반을 넘었으며, 그 다음으로 40-49세가 1/3 이상을 차지하여 조사대상 아버지들의 연령분포는 30-40대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71%인 반면, 중졸 이하는 3%에 불과하여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아버지의 현거주지는 중소도시가 절반 이상이 되었으며(53%), 대도시가 43%를 차지하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연령	20-29세	7(1.4)	배우자 직업	없음	336(64.7)
	30-39세	295(56.9)		있음	183(35.3)
	40-49세	186(35.9)		계	519(100.0)
	50세이상	30(5.8)			
	계	518(100.0)			
학력	중졸이하	16(3.0)	가정의 월평균 수입	100만원미만	17(3.3)
	고졸	134(25.8)		100-150만원미만	103(20.0)
	대학졸	302(58.1)		150-200만원미만	136(26.3)
	대학원졸	68(13.1)		200-250만원미만	101(19.5)
	계	520(100.0)		250-300만원미만	85(16.4)
현거주지	군지역이하	24(4.6)	300만원이상	75(14.5)	
	중소도시	271(52.5)	계	517(100.0)	
	대도시	222(42.9)	가족형태	핵가족	436(84.3)
	계	517(100.0)		확대가족	81(15.7)
				계	517(100.0)
주성장지	군지역이하	165(32.0)	자녀수	1명	71(13.7)
	중소도시	158(30.7)		2명	382(73.6)
	대도시	192(37.3)		3명	58(11.2)
	계	515(100.0)		4명	8(1.5)
				계	519(100.0)
직업	생산/노동직	72(14.0)	응답대상자 녀의 성별	남자	297(63.2)
	자영업	68(13.2)		여자	173(36.8)
	판매/서비스직	29(5.6)		계	470(100.0)
	사무/기술직	166(32.2)			
	경영/관리직	71(13.8)			
	전문직	92(17.8)			
	기타	18(3.4)			
	계	516(100.0)			

여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반면 주성장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이하가 각각 37%, 31%, 32%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사무/기술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32%), 다음이 전문직으로 18%이었다. 생산/노동직, 경영/관리직,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은 13-14% 수준으로 비슷하였고,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가장 적었다(6%). 조사대상자의 배우자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65%로 2/3 정도이었으며,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35%이었다. 월 평균소득면에 있어서 150-200만원이 26%로 가장 많았고,

100-150만원과 200-250만원이 각각 20%로 그 다음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51%)이 월 평균소득 200만원 이상이었으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가정도 15%나 되어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았다. 이는 아버지 역할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집단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집단특성상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으며, 직업분포도 사무/기술직,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형태는 84%가 핵가족이었으며, 자녀수가 2명인 가정이 74%이고 자녀수가 1명인 가정과 3명 이상인 가정은 각각 14%, 13%이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한명의 자녀만을 대상

으로 역할수행 빈도 및 곤란도를 응답하게 하였는데, 응답기준이 된 자녀의 성별로는 남아가 63%, 여아가 37%이었다(표 1).

2.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실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아버지상에 대한 조사결과, 자상하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아버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44%), 그 다음으로 자녀를 바르게 지도·감독하는 아버지를 지적하였다(29%). 그리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아버지와 매사 언행이 모범이 되는 아버지라고 지적한 응답자가 각각 13%, 12%로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의 아버지들이 적어도 그들의 인식이나 기대속에서는 전통적인 '도구적·경제적' 역할수행에 얽매인 아버지 모습보다는 자녀와의 인간관계적·상호작용적 측면을 중시하고 오히려 정의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를 보다 이상적인 형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훈육면에 있어서도 '엄부자모'가 표상하는 엄하고 강인한 아버지보다도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자상한 아버지를 보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곧 아버지 자신들이 '돈벌어오는 기계'라든가 힘겨운 '문제해결사'의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인 아버지, 또는 한 사람의 자유인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로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조사에서도 자상하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아버지가 1위를 차지하였다(36%). 이상적 아버지상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반면(1%), 아버지 자신의 현재 모습에 있어서는 경제적 역할수행을 가장 비중있는 역할로 지적한 응답자들이 18%나 되어 이상과 현실간의 차이가 상당히 큼을 볼 수 있다(표 2).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1/2 정도가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잘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5%,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7%에 불과하였다. 아버지로서 자신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는 60-80점이 48%로 5점척도 평가에서 보통이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점 척도 평가시 아주 잘한다가 1%인 반면, 100점 만점 평가시에는 90점 이상이 16%나 되어 100점 만점 평가시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아버지 스스로 평가한 아버지 점수의 최고점은 99점이었으며 최저점은 23점으로 최고점과 최저점간에 편차가 상당히 컸다(표3).

<표 2>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실제 N(%)

	이상적 아버지상	실제 아버지
자상하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아버지	228(44.1)	186(36.3)
바르게 지도·감독하는 아버지	148(28.6)	163(31.8)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아버지	67(13.0)	31(6.1)
매사에 모범이 되는 아버지	62(12.0)	27(5.3)
가족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아버지	6(1.2)	92(18.0)
기타	6(1.2)	13(2.5)

<표 3>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기 평가

5점척도 분석	N(%)	점수분포	N(%)
전혀 잘하지 못한다	15(2.9)	50점이하	63(12.1)
별로 잘하지 못한다	71(13.8)	50-60	69(13.3)
보통이다	249(48.3)	60-70	132(25.4)
그런대로 잘한다	173(33.6)	70-80	116(22.3)
아주 잘한다	7(1.4)	80-90	58(11.2)
		90점이상	82(15.8)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59%의 응답자가 시간부족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가족의 경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들이 아직도 많은 시간을 직업생활에 할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역할 수행에 있어 시간부족 다음의 장애요인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른다가 16%로 나타나 아버지 역할에 대한 교육, 즉 아버지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

고 12%의 응답자가 경제적 능력 부족을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대체로 잘 따르고 좋아하는 편이다가 가장 많아 49%로 약 1/2 수준이었고, 다음이 매우 좋아하고 잘 따른다 31%, 보통이다 15%이었다. 반면 잘 따르지 않는 편이다는 5%, 전혀 관심이 없다가 1%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기대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3.35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3. 자녀와 관련된 아버지의 역할수행

1) 각 영역별 아버지 역할수행도와 곤란도
 역할수행도는 4점 척도(최대분포범위: 3)이고 곤란도는 5점 척도(최대분포범위: 4)인데, 역할수행도의 평균 점수분포는 1.70-3.32(분포범위: 1.62)이고 곤란도 점수분포는 2.09-3.49(분포범위: 1.4)로 나와 응답자들의 아버지 역할수행도가 곤란도 지각에 비해 개인차가 더 크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역할을 실제로 얼마나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아버지 역할 수행을 어려워하는 정도는 비슷하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는 더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아버지 역할 수행과 곤란도 지각의 특징적 양상들을 역할 영역별로 그리고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육영역

양육영역에서 아버지 역할수행도의 평균은 1.98이고 곤란도 지각 평균은 2.35이다. 아버지 역할수행도와 곤란도 지각 평균은 모두 중간(2.5, 3.0)이하 수준이다. 비교적 수행빈도가 높으면서 덜 어렵게 느끼는 행동으로 아이의 잠자리 보살펴주기,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 씻겨주거나 함께 목욕하는 것, 잘 있는지 가끔 전화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자기 전에 먼저 자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다.

수행빈도가 낮으면서 비교적 어렵게 느끼는 행동은 등하교시켜 주는 것, 아침에 바깥에 도와주거나 챙겨주는 것, 아내가 바깥에

아이의 식사나 간식 또는 의복을 챙겨주는 것이다(표 4). 이는 양육영역에서 아버지들은 자녀를 직접 돌보거나 챙겨주는 것이라든가 등하고 시키기와 같이 번거로운 역할들보다는 병원 데려가기, 함께 목욕하기, 전화확인 등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4> 양육영역에서의 역할수행 빈도와 곤란도

역할 수행도 M(SD)	역 할 내 용	역할 곤란도 M(SD)
1.84(0.85)	아이를 도와주거나 챙겨주기	2.91(1.15)
2.00(0.80)	아이의 식사도와주기	2.87(1.10)
2.10(0.85)	아이의 의복을 챙겨입히기	2.64(1.08)
2.33(0.90)	아이의 잠자리를 보살펴주기	2.31(1.07)
2.43(0.94)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기	2.33(1.13)
2.36(0.97)	아이를 씻겨 주거나 함께 데리고 목욕을 하기	2.39(1.22)
2.34(0.95)	아이가 잘 있는지 가끔 전화로 확인하기	2.26(1.13)
1.70(0.98)	등하교시 데리고 다니기	3.12(1.38)
2.71(1.10)	아이가 자기전에 먼저 자지 않기	2.42(1.25)
1.96(0.84)	간식을 챙겨주기	2.81(1.12)
1.98(0.50)	양육영역에서의 역할수행도 및 곤란도	2.35(0.68)

(2) 생활지도영역

생활지도영역의 역할수행도의 평균은 2.55이고 곤란도 평균은 2.18이다. 수행빈도가 높으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느끼는 행동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물건이나 돈을 아껴 쓰도록 지도하는 것,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반면 수행빈도가 낮으면서 비교적 어렵게 느끼는 행동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과 집안 일을 분담하고 협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처럼 생활지도영역에서는 아버지들의 역할수행이 정직과 내뱉 또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구두적 행위에 치우쳐 있고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거나 가사의 분담과 협력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실천적 행동을 요하는 부문에서는 그 수행빈도가 떨어진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자녀지도 역할수행에서 한국 아버지들의 언어와 행동 일치도가 비교적 낮음

을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5> 생활지도영역에서의 역할수행 빈도와 곤란도

역할 수행도 M(SD)	역 할 내 용	역할곤란도
		M(SD)
2.70(0.89)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2.40(1.04)
3.10(0.84)	잘못이 있을 때는 가르치기	2.27(1.11)
2.93(0.82)	자기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하기	2.40(1.10)
3.03(0.82)	예의범절을 철저히 가르치기	2.33(1.08)
3.03(0.86)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기	2.47(1.16)
2.62(0.86)	생활속에서 나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2.76(1.11)
2.58(0.92)	집안일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것을 가르치기	2.55(1.02)
3.32(0.81)	정칙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기	2.09(1.01)
3.11(0.86)	물건이나 돈을 아껴쓰도록 지도하기.	2.28(1.02)
2.55(0.55)	생활지도영역에서의 역할수행도 및 곤란도	2.18(0.76)

(3) 학습지도영역

학습지도영역의 수행빈도의 평균은 2.08이고 곤란도 평균은 2.50이다. 응답자들이 역할수행은 적게 하면서 특히 어렵다고 느끼는 일은 유치원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준비물 챙겨주기이다. 수행도가 가장 높으면서 가장 어렵지 않은 일로 느끼는 것은 모르는 것 가르쳐 주기이다(표 6).

'모르는 것을 물을 때 가르쳐주기'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연구대상 아버지들의 연령(30대가 57%), 학력(대졸이상)이 71%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을 살피고 숙제지도하기는 수행 빈도가 비교적 낮고 곤란도도 높게 지각되어 아버지들이 보다 구체적인 학습지도를 해 주는 것은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준비물 챙겨주거나 행사참여는 아버지의 몫이 아니라는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습지도 영역의 수행도는 생활지도 영역

의 수행도보다 낮았고 학습지도 영역의 곤란도는 양육영역과 생활지도영역보다 높게 나왔다.

<표 6> 학습지도영역에서의 역할수행도와 곤란도

역할 수행도 M(SD)	역 할 내 용	역할 곤란도
		M(SD)
3.09(0.89)	모르는 것을 물을 때 가르쳐주기	2.21(0.99)
2.31(0.99)	좋은 책이나 학습자료를 소개해 주기	2.71(1.08)
2.65(0.96)	학교생활에 관심을 보이기	2.58(1.05)
2.14(0.93)	공부하는 것을 살피고 숙제 지도하기	2.95(1.09)
1.72(0.90)	준비물 챙겨주기	3.22(1.13)
1.76(0.88)	유치원이나 학교행사에 참여하기	3.49(1.17)
2.53(0.87)	가정의 교육적 환경조성에 신경쓰기	2.81(1.01)
2.49(0.87)	아이의 성적에 관심을 가지고 상담하기	2.78(1.06)
2.08(0.57)	학습지도영역에서의 역할수행도 및 곤란도	2.50(0.67)

(4) 여가 및 취미생활 지도영역

여가 및 취미생활 지도영역의 역할수행도의 평균은 2.41이고, 곤란도 평균은 2.65이다. 수행도가 가장 낮으며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행동은 예술을 즐기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수행도가 낮고 비교적 곤란도가 높은 행동은 교육적·문화적 활동을 함께 하는 것(견학·관람 등)과 함께 운동하기이고, 보다 자주 역할수행을 하며 비교적 어렵지 않은 행동은 함께 외식하기와 함께 친지나 이웃 방문하기 등이다(표 7).

아이와 놀아주거나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것도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다. 진정한 의미의 가족적 여가 및 취미활동보다 외식하기라든가 친지나 이웃 방문하기 등 단순목적의 외출자체가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가 및 취미활동의 내용적 또는 질적 빈곤의 한 단면을 표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 여가 및 취미생활 지도영역에서의 역할수행도와 곤란도

역할 수행도 M(SD)	역할내용	역할 곤란도
		M(SD)
2.53(0.89)	아이의 놀이상대가 되어주기	2.60(1.08)
2.31(0.88)	아이와 함께 교육적, 문화적 활동하기	2.84(1.19)
2.65(0.81)	아이와 함께 친지나 이웃을 방문하기	2.38(1.03)
2.59(0.81)	아이와 함께 외식하기	2.29(1.01)
2.26(0.86)	아이와 함께 운동하기	2.71(1.16)
2.49(0.85)	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지기	2.62(1.03)
2.41(0.89)	아이와 함께 쇼핑하기	2.68(1.12)
2.01(0.88)	음악, 미술 등을 즐기고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3.11(1.16)
2.41(0.65)	여가 및 취미생활 영역에서의 역할수행도 및 곤란도	2.65(0.82)

(5) 대화 및 정서생활 지도영역

대화 및 정서생활 지도영역의 역할 수행도의 평균은 2.78(중간이상)이고 역할 곤란도 평균은 2.39이다. 역할수행도가 높고 곤란도가 낮은 행동은 가족사랑과 형제간 우애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 아이의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주며 축하해 주기,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도록 가르치기, 사랑과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아이가 말할 때 잘 들어주는 것이고, 수행도가 비교적 낮으며 비교적 어렵게 느껴지는 행동은 아이의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이의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다(표 8).

이러한 결과는 이제 한국의 아버지들도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자녀의 말에 귀기울여주는 것을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아직은 자상하게 대화를 나누고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것은 다소 어려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시간부족 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방법론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대화 및 정서생활 지도영역에서의 역할수행도와 곤란도

역할 수행도 M(SD)	역할내용	역할 곤란도
		M(SD)
3.27(0.80)	가족사랑의 중요성, 형제간의 우애를 가르치기	2.16(1.05)
2.93(0.85)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도록 가르치기	2.46(1.06)
2.44(0.88)	아이의 의논상대가 되어주기	2.68(1.06)
2.43(0.89)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 주고 받기	2.63(1.12)
2.53(0.87)	여러가지에 대해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기	2.57(1.04)
2.85(0.78)	아이가 말할 때 잘 들어주기	2.31(0.96)
2.63(0.83)	아버지로서의 입장이나 느낌을 아이에게 표현하기	2.52(1.04)
2.41(0.90)	아이의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하기	2.58(0.99)
3.04(0.98)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주며 축하해주기	2.09(1.06)
2.87(0.92)	사랑과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2.25(1.02)
2.53(0.88)	아이의 친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기	2.53(1.02)
2.78(0.62)	대화 및 정서생활영역의 역할수행도 및 곤란도	2.39(0.74)

(6) 경제적 지원영역

경제적 지원영역의 수행도의 평균은 2.39이고 곤란도 평균은 2.72이다. 수행도가 높고 비교적 덜 어렵게 느끼는 행동은 제 또래와 비슷할 정도로 해주는 것, 원하는 과외활동이나 학원에 다니게 해주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수행도가 비교적 낮고 비교적 어렵다고 느끼는 행동은 옷을 사주는 일, 아이가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제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용돈이나 비상금을 넉넉히 주는 것이다(표 9).

경제적 역할수행의 곤란도는 여섯 영역중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런 가운데서 자녀가 또래와 어울릴 수 있을 만큼 뒷받침 해주는 것이 라든가 과외와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경제적 역할에 포함된 다른 행동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오늘날 한국 가정의 자녀양육 관련 가치체계 및 가계지출의 우선 순위가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 경제적 지원영역에서의 역할수행도와 곤란도

역할 수행도 M(SD)	역 할 내 용	역할 곤란도 M(SD)
2.57(0.86)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사주거나 살 수 있도록 돈주기	2.49(0.96)
2.10(0.88)	용돈이나 비상금을 넉넉히 주기	2.81(1.04)
2.64(0.91)	원하는 과외활동이나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주기	2.54(1.00)
2.54(0.85)	자라면서 변화하는 요구들을 그 시기에 맞게 충족시켜주기	2.75(1.07)
2.69(0.84)	경제적 뒷받침면에서 아이가 또래와 비슷할 정도로 해주기	2.58(0.95)
2.63(0.84)	물질적인 면에서 아이에게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기	2.66(1.01)
2.05(0.78)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 제한하지 않기	2.91(1.03)
1.94(0.83)	아이의 옷 사주기	3.04(1.12)
2.39(0.53)	경제적 지원영역에서의 역할수행도 및 곤란도	2.72(0.76)

(7) 영역별 역할수행도와 곤란도의 전체적 특징

이상에서 소개된 영역별 역할수행도와 곤란도 지각의 평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별 아버지 역할수행도는 대화 및 정서생활 지도영역(2.7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생활지도(2.55), 취미생활 지도영역(2.41), 경제적 지원영역(2.39), 학습지도 영역(2.08), 그리고 양육영역(1.98)의 순으로 나타나서 양육과 학습지도 영역에서의 역할수행도가 가장 낮았다. 역할수행 곤란도는 경제적 지원영역(2.72)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여가 및 취미생활 영역(2.65), 학습지도 영역(2.50), 대화 및 정서생활영역(2.39), 양육영역(2.35), 그리고 생활지도영역(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행빈도가 낮았던 양육영역이 곤란도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들이 양육역할을 아버지의 중요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으로 생각되며, 경제적 지원영역을 가장 어렵게 인식하는 것은 오늘날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역할수행도와 곤란도간의 상관

각 역할영역별로 본 수행도와 곤란도간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

역할수행도와 곤란도간 상관계수는 양육영역 -.57, 생활지도 영역 -.50, 학습지도 영역 -.59, 여가 및 취미생활 영역 -.74 대화 및 정서발달 영역 -.68, 그리고 경제적 지원영역 -.59로 나왔다. 이처럼 아버지 역할의 전 영역에서 역할수행도와 곤란도는 상당히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표 10), 대체로 역할수행도가 높은 것은 곤란도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각 영역별 역할수행 빈도와 곤란도간의 상관관계

곤란도 수행도	양육	생활 지도	학습 지도	여가 및 취미생활	대화 및 정서지도	경제적 지 원
	-.57*	-.50*	-.59*	-.74*	-.68*	-.59*

* p<.001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여가 및 취미생활 영역의 행동들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일수록 그 수행도가 낮고 쉬운 것일수록 수행도가 높은 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영역의 행동들은 쉬운데도 하지 않거나 어려워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종류의 활동들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활지도 영역에서는 역할수행도-곤란도간의 상관계수가 다른 영역보다 훨씬 낮게 나왔는데, 이는 이 영역의 역할들은 쉬우면 하고 어려우면 안해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고 지각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3) 아버지 역할수행도와 곤란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역할수행도와 곤란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배우자의 직업유무와 응답자의 주 성장지, 연령, 학력이었다.

(1) 배우자의 직업유무

배우자의 직업유무에 따른 응답자의 아버지 역할수행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자녀의 생활지도와 여가 및 취미생활 지도에서 배우자의 직업유무에 따른 역할수행도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의 양육영역, 학습지도, 대화 및

정서발달 지도, 그리고 경제적 지원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표 11). 이는 취업모 가정의 아버지들이 전업주부 가정의 아버지들보다 어쩔 수 없이 자녀의 생활지도를 더 많이 하게 되며 반면에 맞벌이로 인한 경제적 여유로 여가 및 취미생활 지도영역의 역할 수행도가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 배우자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도 차이

역할영역 배우자 직업	생활지도		여가 및 취미생활	
	M(SD)	t(p)	M(SD)	t(p)
무	2.89(.62)	-2.78 (.006)	2.35(.52)	-2.31 (.022)
유	3.04(.58)		2.48(.54)	

(2) 주 성장지

응답자의 주 성장지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 빈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가 및 취미생활, 대화 및 정서생활, 그리고 경제적 지원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가 및 취미생활 영역에서의 아버지 역할수행도는 주 성장지가 대도시였던 경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로 조사되었다. 군지역 이하에서 성장한 응답자들이 여가 및 취미생활 영역에서의 역할수행도가 낮았다. 그리고 대화 및 정서생활 영역과 경제적 지원영역에서의 아버지 역할수행도도 주 성장지가 대도시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그리고 군지역 이하의 순으로 역할수행도가 낮았다(표 12).

위와 같은 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대도시에서 성장한 아버지들의 역할수행 빈도가 중소도시나 군단위 이하에서 성장한 아버지들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주 성장지에 따른 역할수행 곤란도를 조사한 결과, 역할수행도와 마찬가지로 여가 및 취미생활, 대화 및 정서생활, 그리고 경제적 지원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가 및 취미생활과 경제적 지원영역은 대도시 출신 응답자가 가장 수월하게 느끼고 있었고, 중소도시, 군지역 이하 출신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반면 대화 및 정서생활 영역은 중소도시 출신자가 가장 어렵게 느끼고, 대도시 출신자들이 가장 수월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이는 다양한 가치가 혼재

하고 보다 개방적인 대도시나 비교적 폐쇄적이고 보수적 가치관이 우세한 군단위 이하 지역보다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중소도시의 경우가 오히려 가치관론이 심하여 자녀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주성장지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도 차이

역할영역 주성장지	여가 및 취미생활		대화 및 정서생활		경제적 지원	
	M(SD)	F(p)	M(SD)	F(p)	M(SD)	F(p)
군지역이하	2.23 (.58)		2.65 (.60)		2.28 (.45)	
중소도시	2.38 (.61)	12.63 (.0000)	2.74 (.58)	8.74 (.0002)	2.44 (.56)	4.95 (.0075)
대도시	2.58 (.69)		2.93 (.63)		2.46 (.54)	

<표 13> 주성장지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 곤란도 차이

역할영역 주성장지	여가 및 취미생활		대화 및 정서생활		경제적 지원	
	M(SD)	F(P)	M(SD)	F(P)	M(SD)	F(P)
군지역이하	2.82 (.78)		2.45 (.70)		2.92 (.70)	
중소도시	2.66 (.82)	6.56 (.002)	2.48 (.74)	4.50 (.012)	2.62 (.73)	8.32 (.000)
대도시	2.47 (.82)		2.23 (.75)		2.58 (.76)	

(3) 연령 및 학력

응답자의 연령을 40대 미만과 40대 이상의 두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평균차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역할수행 빈도에 있어 양육(p<.000), 여가 및 취미생활(p<.000), 그리고 4미만이 40대 이상 집단과 비교하여 역할수행도가 높았다.

역할수행 곤란도의 연령별 지각 차이를 보면 양육과 대화 및 정서생활 지도영역에서 40대 이상 집단이 40대 미만 집단보다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대화 및 정서생활지도 영역에서 역할수행도는 40대 미만 집단이 높았고, 반면에 곤란도는 40대 이상 집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젊은 응답자들이 보다 자주 참여하고 수월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지도, 학습지도, 그리고 경제적 지원영역에서는 응답자의 연령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학력수준도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평균차의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과 학습지도 영역에서는 고졸 이하 집단보다 대졸 이상 집단의 수행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p < .001$).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여가 및 취미생활지도와 대화 및 정서생활지도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 집단은 두 영역에서의 역할수행도가 대졸 이상 집단보다 크게 낮았다($p < .000$, $p < .000$).

반면, 역할수행 곤란도에 있어서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 집단이 대졸 이상 집단보다 역할수행에 있어 곤란도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p < .001$).

(4) 소득수준에 따른 역할수행도와 곤란도

소득수준은 200만원 이상과 미만인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생활지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가지 영역의 역할수행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 즉 양육영역($p < .005$), 학습지도($p < .05$), 여가 및 취미생활($p < .000$), 대화 및 정서발달지도($p < .000$), 그리고 경제적 지원($p < .001$) 등에서 역할수행도는 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2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곤란도 지각에서는 여가 및 취미생활지도($p < .001$)와 경제적 지원영역($p < .001$)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5)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도와 곤란도

아버지의 역할수행도와 곤란도는 응답자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간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역할수행과 곤란도 지각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자녀수가 극히 감소하였고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면서 남녀평등관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아버지 역할 수행도 · 곤란도와 생활만족도간의 상관

응답자의 생활만족도는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자녀에 대한 기대 만족도, 직업생활 만족도 등의 세가지 하위영역에서 살펴보았다. 각 하위 영역별 만족도의 평균치를 보면 아버지 역할 만족도가 3.21, 자녀에 대한 기대 만족도가 3.35, 직업생활 만족도가 3.23으로, 그저 그렇다를 약간 상회하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역할수행도와 그 역할의 곤란도에 대한 아버지 자신의 지각이 아버지의 생활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를 하는 것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역할 만족도는 여가·취미생활지도 영역의 역할수행도($r = .23$)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그리고 대화·정서생활지도 영역($r = .20$)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가·취미생활지도 영역의 곤란도($r = -.23$), 대화·정서생활지도 영역의 곤란도($r = -.22$)와는 높은 유의도의 부적상관을 지니고 있고, 생활지도 영역의 곤란도($r = -.20$) 및 경제적 지원 영역의 곤란도($r = -.19$)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녀에 대한 기대만족도는 여가·취미생활지도 영역의 곤란도($r = -.17$), 대화 및 정서생활지도 영역의 곤란도($r = -.16$) 그리고 경제적 지원영역의 곤란도($r = -.16$) 등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평가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여가 및 취미생활 제공 능력이고 그 다음이 대화 및 정서생활지도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지도와 경제적 지원 및 학습지도를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아버지로서의 자기역할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영역만은 아버지들의 자기 역할 만족도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들이 양육적 행동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여가 및 취미생활지도, 대화 및 정서생활지도, 그리고 경제적 지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이러한 역할

들이 오늘의 아버지 역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반영해주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들의 만족도가 아버지 자신의 역할 수행도가 아닌 역할곤란도 지각하고만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아버지들이 실제 역할수행에 관한 질문보다는 역할곤란도에 관한 질문에 보다 편하고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아버지 역할수행은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것이 발생하는 맥락이나 분위기, 또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의 지각과 태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역할 곤란도 지각에 있어서 여가 및 취미생활 영역에서만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 및 취미생활 영역에서 지각하는 곤란도가 낮았다. 역할수행도와 곤란도의 6가지 영역 대부분에서 직업만족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아버지의 역할수행도, 곤란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만족도		아버지	자녀에	직업
수행도 및 곤란도		역할	대한 기대	생활
수 행 도	양육	.14	.12	.07
	생활지도	.12	.05	.02
	학습지도	.18*	.07	.04
	여가 및 취미생활	.23**	.16	.12
	대화 및 정서생활	.20*	.13	.06
	경제적지원	.04	.06	-.02
곤 란 도	양육	-.15	-.12	-.09
	생활지도	-.20*	-.12	-.08
	학습지도	-.17*	-.11	-.09
	여가 및 취미생활	-.23*	-.17*	-.17*
	대화 및 정서생활	-.22**	-.16*	-.12
	경제적지원	-.19*	-.16*	-.14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응답자가 인식하는 이상적인 좋은 아버지상은 자상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아버지이며, 다음은 자녀를 바르게 지도·감독하는 아버지였다. 현재 아버지로서 자신의 실제 역할에 대하여 같게 인식하였으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2. 양육, 생활지도, 학습지도, 여가 및 취미생활, 대화 및 정서생활, 경제적 지원의 6개 영역에서 역할수행도는 대화 및 정서생활에서 가장 높았고, 양육영역과 학습지도에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역할수행 곤란도는 경제적 지원영역이 가장 높았고, 생활지도가 가장 낮았다.

3. 아버지 역할수행도 및 곤란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배우자의 직업유무, 응답자의 주성장지, 연령, 소득, 학력 등이었다.

4. 아버지 역할수행도와 곤란도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으며, 따라서 역할수행도가 높을수록 역할 곤란도는 낮았으며, 역할수행 빈도가 낮을수록 역할곤란도는 높았다.

5. 아버지 역할수행도와 곤란도에 있어서 각 영역과 생활만족간에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즉 아버지 역할 만족도는 3가지 영역(학습지도, 여가 및 취미생활, 대화 및 정서생활)에서 역할수행도와 5개 영역(생활지도, 학습지도, 여가 및 취미생활, 대화 및 정서생활, 경제적 지원)에서의 곤란도와 상관이 있었으나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역할 수행도와는 관계가 없고 3개 역할 곤란도 영역(여가 및 취미생활, 대화 및 정서생활, 경제적 지원)에서만 관계가 있었다.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여가 및 취미생활 영역에서만 역할 곤란도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아버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부족,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경제능력 부족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아버지 역할을 짧은 시간내에서도 질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에 대한 기술과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2.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역할 기술을 개발하며
3. 경제와 관련이 적은 아버지 역할부분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여

4. 직장에서 직원 교육시 부모역할훈련 내용도 포함시킬 것과 아버지들이 시간부족으로 역할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직원관리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강혜관(1990).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 역할 특성간의 관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수(198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양육관과 양육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란(1985).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관련 요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영(1985). 아버지 역할과 유아의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희(1989). 유아기 아버지의 역할수행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주(1995). 신문에 실린 아동 양육 관련 기사를 통해서 본 아버지 역할 내용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 153-166.

김진, 이신숙, 신효식(1994).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7, 44-55.

민현숙(1997). 아동기 아버지의 생활만족 수준과 역할수행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문학(1988). 아버지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녀양육참여도와와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1985).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재고, 생활과학과 가정,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논문집, 45-57.

박은령(1986).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인식: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 한국아동학회지, 7, 33-53.

박영충(1985). 유아교육기관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득주(198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취학전

아동의 성격특성 고정관념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 87-101.

연미희(1995). 한국 부모에 대한 P.E.T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성 평가,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미경(1990).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수행 정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화심(199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위영희(1978). 아동양육에 있어서의 아버지 역할과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영주(1980).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이금자(1988). 유아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인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원(1985). 현대사회의 부모의 역할,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탐색, 유아지도교실 2, 35-47.

이신숙(1988). 아버지의 양육역할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옥선(1987). 아버지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희(1985).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및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정하(1994). 아버지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은희(1995). 영·유아기 자녀의 아버지가 인식한 부모교육,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문자(1987). 발달주기에 따른 아버지역할. 한국아동학회지, 8, 107-115.

정영숙·이희자(1979).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관심도와 자녀의 인성과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 83-105.

정영숙·이희자(1980).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

- 정영숙·전은희(1996).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한국생활과학회지, 5, 37-52.
- 차은영(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아버지와 자녀간의 활동,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순(199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4권2호.
- 최경순, 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 125-139.
- 한경혜(1996).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역할, 대한가정학회지, 34, 231-244.
- 황정해(199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nett, R. C., Marshall, N. L., & Pleck, J.(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58-367.
- Bayant, W. K. & Zick, C. D.(1996).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Shared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227-237.
- Bigner, J. J.(1977). Attitudes toward Fathering and F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2), 89-106.
- Crockett, L. J. Eggebeen, D. J., & Hawkins, A. J.(1993). Father's Presence and Young Children's Behavioral and Cognitive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4, 355-376.
- Deutsch, F. M., Lussier, J. B., & Servis, L. J.(1993). Husband at Home: Predictors of Parental Participation in Childcare and Hous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1154-1166.
- Greenberger, E., O'Neil, R., & Nagel, S. K.(1994). Linking Workplace and Homeplace: Relations Between the nature of adults' Work and Their Parent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6, 990-1002.
- Grimm-Thomas, K., Perry-Jenkins, M.(1994). Job Experiences, Self-esteem, and Fathering in Working-class Families, Family Relations, 43, 174-181.